

# 大腸正格의 활용에 있어 頸項部 結核의 診斷意義에 관한 文獻考察

김 광 성<sup>1</sup> · 임 윤 경<sup>1</sup>

<sup>1</sup>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 A literature study on the diagnostic value of the cervical lymph node in the application of large intestine tonification of Sa-Am acupuncture

Kwang-Sung Kim<sup>1</sup>, Yun-Kyoung Yim<sup>1</sup>

<sup>1</sup>Dept. of Meridian & Acupunctur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 Methods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agnostic value of the cervical lymph node in the application of large intestine tonification of Sa-Am acupuncture.

**Results & Conclusions :** Cervical lymph node appeared in 76% of the cases for which large intestine tonifying Sa-am acupuncture was used in 「Sa-am-do-in-chim-gu-yo-gyul(舍巖道人鍼灸要訣)」. We suggest that cervical lymph node can be used as an important diagnostic point for the application of large intestine tonification of Sa-Am acupuncture.

**Key words :** Sa-Am acupuncture, large intestine tonification, cervical lymph node

### I. 緒 論

舍巖鍼法은 五行에서 母能令子虛하고 子能令母實하는 相生關係와 克實則令我虛하며 克虛則令我實하는 敵邪關係를 바탕으로, 주슬관절이하에 분포한 五輸穴에 자침하여 經絡間 氣血의 虛實과 盛衰를 調整하여 陰陽平衡을 이루는 鍼刺法이다<sup>1)</sup>.

舍巖鍼法은 조선시대에 舍巖道人에 의해 만들어져 전해오고 있지만, 영인본이 없이 필사

본 몇 가지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후학들이 연구하고 임상에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임상적 효용가치가 뛰어나 근래에 들어 많은 임상가들이 임상에 활용하고 있다.

저자는 「舍巖道人鍼灸要訣」을 공부하던 중 大腸正格이 적용된 치험례들에서 頸項部 結核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手陽明大腸經이 頸部로 走하므로 頸項部 結核이 大腸病變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大腸正格의 診斷 기준으로서 頸項部 結核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좀 더 심도 깊게 알아보고

· 교신저자: 임윤경, 대전광역시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Tel. 042-280-2610, Fax. 042-280-2610, E-mail : docwindy@dju.ac.kr  
· 투고: 2006/07/24 · 심사: 2006/09/06 · 채택: 2006/09/11

자, 大腸과 手陽明經의 生理的 病理的 고찰을 통하여 頸項部 結核과 大腸正格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본 연구에서는 「舍巖道人鍼灸要訣」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舍巖道人鍼灸要訣」에서 大腸正格이 사용된 곳은 中風門, 痰飲門, 噎膈門, 呃逆門, 泄瀉門, 頭痛門, 腹痛門, 腰痛門, 疝氣門, 喉病門, 齒痛門, 痔病門 등 12개의 門이다. 그 중에는 치험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大腸正格의 變方이 사용된 곳도 두 군데 나타났다.

「舍巖道人鍼灸要訣」에서 大腸正格이 사용된 치험례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頸項部 結核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舍巖道人鍼灸要訣」에서 大腸正格의 정형이나 변형이 사용된 치험례를 찾아본 결과, 17회의 치험례에서 大腸正格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중 13회에서 頸項部 結核이 나타나고 있었다.

### 1. 大腸正格 활용 치험례 중 耳下結核 또는 頸項部 結核이 나타난 경우(13회)

#### 1) 中風門(3회)<sup>2)</sup>

① 一男子가 年十五에 全身에 浮腫이 나고 兩眼을 未開하여 겨우 물건을 볼 뿐이라 처음에는 脹證인가 疑心했더니 診察의 結

果 項部에 結核이 있으며 體氣가 虛弱하여 반드시 風傷腑라 認證되므로 大腸正格을 用하기 一次에 浮腫이 빠지고 項上結核은 數三度에 消滅됐다.

② 一男子가 年十五六에 왼쪽 耳根 밑에 白色 皸로통한 것이 나와있을 뿐 다른 아무런 苦痛은 없는지라 이것은 體氣虛弱으로 오는 一種의 風傷腑證으로 大腸正格을 用하기 數度에 見效하였다.

③ 一小兒가 年三歲에 항상 泄瀉(淸)가 그치지 않으며 얼굴빛이 누렇고(黃) 약간 浮氣가 있으며, 齡骨(명치뼈) 밑에 伏梁(心積)이 있는 것 같고 耳下 大腸分野 오른쪽에 核이 有하므로 大腸正格을 治하기 數度에 病已하였다.

#### 2) 噎膈門(1회)<sup>2)</sup>

① 氣結胸膈을 噎膈이라하는데 一男子가 年二十餘에 面色이 萎黃微浮하고 肌膚가 肥大하며 恒時 食滯로 苦痛을 받고 項側에 結核이 있어 瘰癧과 같은지라 大腸噎로 治하였더니 有效하였다.

#### 3) 腹痛門(5회)<sup>2)</sup>

① 一男子가 처음에는 腹痛을 作하더니 혹 腰痛도 있으며, 後에 風丹이 있어 왼뺨이 온통 붉고 左項大腸分野에 結核이 많으므로 大腸正格을 썼더니 病이 낫더라. 동시에 一女子가 또한 此證이 있으나 다만 腰痛을 作하고 風丹이 있으므로 목을 診察한 結果 上과 같은 治療法으로 有效하

었다.

- ② 一女子가 恒常 小腹이 作痛하는데 腎弱인지 大腸의 不足인지 項部를 診察하니 結核이 있으므로 不病便 大腸正格을 썼더니 卽止하더라. 胎熱에도 많이 效驗을 보았다.
- ③ 一男兒가 年十餘에 臍下痛 屢日에 올고 몸부림치는데 以下大腸分野를 診察하니 結核이 있는지라 大腸虛인 줄 알게 됨으로 大腸正格을 썼더니 快差하더라.
- ④ 一女兒가 年十四五세에 全身에 浮腫이 생겨 두 눈을 겨우 뜨며, 頭瘡이 있는지 이미 오래고 목(項) 大腸分野에 結核이 있는지라 巴야흐로 胎毒인줄 알게 되어 大腸正格을 썼더니 數三回에 浮腫이 다 빠지고 胎熱이 또한 났더라.
- ⑤ 一男子가 年十四五에 右邊牙齒가 疳瘡이 먹어서 膿汁이 齒間으로부터 솟아나오며 왼뺨이 붓고 때로 振寒을 作하며 腫處가 아프고 すす시며 頭, 面一邊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왼쪽으로 돌이킨 채 轉側이 不能한지라 목을 診察하여 胎毒인 줄 알고 大腸正格을 썼더니 有效하더라. 項上結核이 아니었으면 어찌 胎熱인 줄을 알았으랴. 小兒의 頭瘡과 項核은 모두 大腸의 虛이다.

#### 4) 腰痛門(3회)<sup>2)</sup>

- ① 一童子가 年十餘에 오른쪽 다리를 절고 踝骨 밑이 돌아가면서 痠痛하며 左右 귀 밑이 結核의 大者가 十餘요, 小者가 不計

其數인데 대부분이 大腸分野에 있으며 兩眼黑睛에 紅白絲狀物이 亂散하기 안개와 같거늘 大腸正格으로써 治하였더니 四五度に 快癒하더라.

- ② 一男子가 年五十에 腰痛과 함께 右脚이 無力한지가 이미 屢年이러니 項部를 診察한 結果 大腸分野에 結核이 있으므로 大腸正格을 썼더니 數度に 났더라.
- ③ 내가(舍岩자신) 少時로부터 隱隱이 腰痛이 있고 或換節期에는 左右手臂가 水腫과 같았다가 或 二三月에 풀리기도 하고 或은 四節을 풀리지 않기도 하며 或은 가을(秋)이면 尤劇하여 胸背가 脊重하고 上腹이 如飽하며, 耳鳴이 大作하고 때로는 蕭然이 잠이 드나 때로는 恐怖症을 느끼거늘 널리 藥肆에 물었더니 或은 內腫이라고도 하고 或은 心火라고도하여 百口가 異說하고 한사람도 大腸證候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사람들이 잘못 虛勞라 指稱하여 生命을 버리는 者가 十常八九로 이것이 大腸의 虛이다. 나의 三第와 長姪이 모두 이것으로써 그르쳤다. 何故아 母胎不足과 痘經의 餘熱로 或은 項核이 되고 或은 喉熱이 되고 或은 口가 마르고 齎齎기를 잘하며, 或은 脇腋이 아프고 或은 疝氣로 되며 或은 風疾도 되고 或은 噎膈도 되며 或은 眼疾도 된다. 此等諸證은 이른바 稟賦不足으로서 가장 恨되는 것은 晚覺이다. 經閱이 아니면 如神한 此理를 어찌 알까보나

5) 喉證門(1회)<sup>2)</sup>

- ① 一男子가 右邊咽喉가 부어서 惡寒, 嚔艱 (어려울 간), 言訥, 流涎 等證을 訴하여 喉熱로써 治하였더니 效驗이 없으며 甚히 痿黃하고 耳下大腸分野에 大, 小豆만한 三四個의 結核이 있고 또한 腰痛이 있다 하거늘 大腸正格을 썼더니 二次에 見效하였다. 그러면 診證에만 밝으면 或本方外에도 奇效方이 있는 것인가?

2. 大腸正格 활용 치험례 중 耳下結核 또는 頸項部 結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4회)

1) 頭痛門<sup>2)</sup>

- ① 一女子가 항시 頭, 或은 頸項에 痛感이 甚하고 發作時에는 或은 깜짝 깜짝 놀라며 舉眼視物이 不能한데 듣건대 十歲前後에 頸項痛이 있었다 한다. 비록 肝候와 비슷하나 大腸證이 있으므로 大腸正格을 썼더니 效驗이 있더라. 頭痛은 원래 大腸證이 없는 것인데 頸項痛은 治病하는 者가 반드시 肝經인가 疑心함으로 風門에 「體氣虛弱, 風必傷腑」의 證을 引用하여 解明해 둔다.

2) 泄瀉門<sup>2)</sup>

- ① 一小兒가 年十歲 안팎에 恒常 泄瀉를 患하여 或은 白濁 或은 濡泄, 或은 飧泄 等證과 함께 面腹이 微浮하고 或은 晝夜不分 或은 半日을 間하여 先濁後清物을 瀉

하고 心下에 伏梁이 있는 것 같아 大腸證候를 多見하므로 大腸正格으로 治하였더니 有效하더라. 그러면 胎熱이 肉에 在한 者가 津液을 壅遏하여 傳導하지 못한 까닭이라 할까 泄門에 원래 大腸治法이 없어서 治之者의 難及處가 되므로 腹痛門의 寒邪入腸을 引用하여 밝혀 놓는다.

3) 腹痛門<sup>2)</sup>

- ① 一壯丁男子가 終日 蹇裳水役 끝에 腹痛이 大作하거늘 壬年을 當한지라 運氣로써 治하고 水役은 隆寒한 것이므로 大腸正格으로 治하여 有效하였다. 立效活變의 道가 微妙하지 않은가?

4) 腰痛門<sup>2)</sup>

- ① 一婦人이 항상 腰痛의 苦로 먹지를 못하고 全身에 浮氣가 있는데 頭, 面이 尤重하며 或은 癩疹이 生하고 或은 腹痛이 있는지라 大腸의 虛이므로 大腸正格을 썼더니 諸證이 快差하더라.

3. 大腸正格을 사용하지 않은 結核에 관한 치험례(2회)

1) 濕症門(中濕)<sup>2)</sup>

一男子가 年五十에 兩脚「曲泉」上으로부터 陰莖에 이르기까지 左右쪽에 貫珠狀의 結核이 있고 風寒을 싫어하여 出門하지 않은지 이미 屢日이며, 때는 正히 夏末을 當한지라 濕氣가 方盛한 節氣이며, 또한 右邊이 甚하므로 少府

大都 補, 隱白·大敦 瀉하기 一次에 痛症이 그치고 痢疾이 作하더니 第三日만에 두가지의 症勢가 모두 掃然하더라. 그러면 兩脚流注의 濕氣가 白痢로 變하여 없어진 것일까? - 脾正格.

## 2) 痛風門<sup>2)</sup>

一男子가 年三十에 四肢와 全身이 刺痛하고 四五日後에 無數한 結核이 생겨서 或은 主맥만, 或은 胡桃 및 生栗과 같은지라 이렇게 하기를 數十日하다가 곧 풀려 平常과 같고 三四日後에 다시 그런지가 벌써 屢年이라하는지라 商陽·竅陰 補, 陽谷·陽輔 瀉하였더니 腹作하지 않고 數度에 快差하였다. 此證은 行痺인 것이다. - 膽勝格.

이상에서, 「曲泉」上으로부터 陰經에 이르는 結核은 濕症으로 보고 脾正格을 사용하였고, 전신에 발생한 結核은 行痺로 보고 膽勝格을 사용하였다.

## Ⅲ. 考 察

舍巖鍼法은 “母能令子虛”하고 “子能令母實”하는 五行의 相生關係와 “克實則令我虛”하고 “克虛則令我實”하는 五行의 敵邪關係에 입각하여 주슬관절 이하에 분포하는 五輸穴에 자침함으로써 經絡間 氣血의 虛實과 盛衰를 調整하여 陰陽平衡을 이루는 鍼刺治療法이다<sup>1)</sup>. 이러한 원리에 따라 大腸正格은 自經의 土穴인 曲池와 土經의 土穴인 足三里를 補하고, 自經의 火穴인 陽谿와 火經의 火穴인 陽谷을 瀉하는 처방

으로 구성되어 있다.

「靈樞經脈篇」<sup>3)</sup>에는 “大腸手陽明之脈, 起于大指次指之端, 循指上廉, 出合谷兩骨之間, 上入兩筋之中, 循臂上廉, 入肘外廉, 上臑外前廉, 上肩, 出髃骨之前廉, 上出于柱骨之會上, 下入缺盆, 絡肺, 下膈, 屬大腸. 其支者, 從缺盆上頸貫頰, 入下齒中, 還出挾口, 交人中, 左之右, 右之左, 上挾鼻孔.”라 하여, 大腸經絡이 頸部로 走行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靈樞經脈篇」<sup>3)</sup>에서는 “是動則病齒痛. 頸腫. 是主津液所生病者-目黃, 口乾, 衄衄, 喉痺, 肩前臑痛, 大指次指痛不用. 氣有餘則當脈所過者熱腫, 虛則寒慄不復.”라 하여, 大腸經의 是動病에 “頸腫”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大腸은 小腸이 아래로 보낸 음식물의 찌꺼기를 받아 그 중 남아 있는 대부분의 수분을 재 흡수 하므로 “大腸主津”이라 하였다. 또한 분변을 형성하여 廣腸을 거쳐서 肛門으로 배출하므로 「素問·靈蘭秘傳論」<sup>4)</sup>에서는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이라 하였다. 음식물은 입에서 胃로 들어가 胃의 受納 腐熟作用, 脾의 運化作用, 小腸의 泌別清濁과 化物作用을 거치고, 그 精微물질은 脾에 의해서 肺로 傳輸되어 心肺의 공동작용으로 인해 전신으로 輸布하고, 그 찌꺼기는 大腸에서 糞便이 되어 肛門을 통해 체외로 排出된다. 이것이 바로 음식물의 소화, 흡수, 精微의 散布 및 그 찌꺼기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大腸의 傳道作用이 失調하면 便秘나 腹脹에 이를 수 있다. 大腸의 順조로운 傳道作用은 인

체 津液의 충만 여부 및 肺胃氣의 通降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체의 津液이 충만하고 肺氣의 宣發, 肅降作用이 節度가 있으며 胃氣가 通降되면, 大腸의 傳道機能이 비로소 정상화 되고, 糞便도 규칙적으로 배출된다. 만약 津液이 부족하면 腸燥하여 便秘에 이를 수 있으며, 肺胃의 氣가 上逆하여 내려오지 못하면 腸內에서 마른 변을 형성하여 변비가 된다. 반대로 만약 大腸의 傳道作用이 실조하면, 또한 肺胃의 氣가 上逆하는 등의 病變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張介賓은 「類經·十二經病」중의 注에서 “大腸과 肺는 서로 表裏가 되는데, 肺는 氣를 주관하여 津液이 이로 인해서 氣化되므로 무릇 大腸의 설사와 변비는 모두 津液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이므로 津液은 大腸에서 주관한다(大腸與肺爲表裏, 肺主氣, 而津液由于氣化, 故凡大腸之或瀉或秘, 皆津液所生之病, 而主在大腸也)”고 하였다. 李東垣은 津液이 肺氣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脾胃가 化生하는 營氣에도 의지한다고 인식하여 「脾胃論·大腸小腸皆屬于胃虛則俱病論」에서 “大腸은 津을 주관하고, 小腸은 液을 주관한다. 大腸과 小腸은 胃의 營氣를 받아서 津液을 上焦로 운행시켜서 皮毛를 적셔주고, 腠理를 충실하게 한다. 만약 飲食不節하거나 胃氣가 부족하게 되어 大腸과 小腸이 영양을 받지 못하면 津液이 고갈된다(大腸主津, 小腸主液, 大腸小腸受爲之營氣乃能行津液于上焦, 灌溉皮毛, 充實腠理. 若飲食不節, 胃氣不及, 大腸小腸無所稟受, 故津液枯竭焉)”고 하였다<sup>5)</sup>.

六氣의 관점에서 大腸經絡은 金의 天符經絡으로서 燥氣를 주관하고 濕의 과잉을 제어하여 몸 전체의 燥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大腸經의 강화는 燥金之氣의 강화로 이어져 六氣上 對待 관계에 해당하는 濕土之氣를 제어하게 된다<sup>6)</sup>.

이상에서 手陽明大腸經의 流走, 生理, 病理 등을 고찰한 결과, 手陽明大腸經은 經脈流走上頸項部와 관련이 있으며, 그 是動病에 ‘頸腫’이 나타나고, 生理적으로 津液과 관련이 깊으며, 燥濕의 조절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手陽明大腸經의 病變時에 津液대사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 頸項部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舍巖道人鍼灸要訣」에서 大腸과 관련된 치험례를 고찰한 결과, 17회의 치험례에서 大腸正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13회(76%)에서 頸項部 結核이 나타나고 있다.

頸項部 結核과 관련된 大腸正格 적용 치험례들을 살펴보면, 舍巖道人이 頸項部 結核을 胎熱이나 稟賦不足으로 인한 大腸虛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舍岩道人鍼灸要訣, 中風門」에 “.....項部に 結核이 있으며 體氣가 虛弱하여 반드시 風傷腑라 인증되므로.....”라 하였으며, 또한 「舍岩道人鍼灸要訣, 腹痛門」에서, “.....項의 大腸分野에 結核이 있는지라 바야흐로 胎毒인 줄 알게 되어.....”, “.....項上結核이 아니었으면 어찌 胎熱인 줄 알았으랴. 小兒의 두창과 항핵은 모두 大腸의 虛症이다.”라 하여, 項部結核을

胎毒, 胎熱 및 稟賦不足으로 인한 大腸의 虛症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舍巖道人鍼灸要訣, 腰痛門」에 舍巖道人 본인의 치험례가 나오는데 “.....한사람도 大腸證候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사람들이 잘못 虛勞라 指稱하여 生命을 버리는 者가 十常八九로 이것이 大腸의 虛이다.....(중략).....母胎不足과 痘經의 餘熱로 或은 項核이 되고 或은 喉熱이 되고 或은 口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或은 脇腋이 아프고 或은 疝氣로 되며 或은 風疾도 되고 或은 噎膈도 되며 或은 眼疾도 된다. 此等 諸證은 이른바 稟賦不足으로서 가장 恨되는 것은 晚覺이다....”라 하여 大腸虛症에 項核이 나타날 수도 있고 虛勞와 비슷한 여러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는 虛勞가 아니고 타고난 稟賦不足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舍巖道人鍼灸要訣, 泄瀉門」에서는 “.....胎熱이 肉에 在한 者가 津液을 壅遏하여 傳導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여 胎熱이 있으면 津液이 말라 傳導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素門·靈蘭秘傳論」의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과 「脾胃論·大腸小腸皆屬于胃虛則俱病論」의 “大腸主津”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胎熱과 大腸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상에서 舍巖道人是 頸項部結核을 선천적인 稟賦不足이나 胎毒, 胎熱로 인한 體氣虛弱으로 津液이 말라 傳導기능이 떨어져 傳導之官인 大腸의 經絡流走 부위인 頸項部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大腸虛證으로 진단하여 大腸正格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項部 結核은 大腸正格의 임상응용에 有意한 診斷 요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V. 結 論

頸項部結核은 선천적인 稟賦不足이나 胎毒, 胎熱로 인한 體氣虛弱으로 津液이 말라 津液의 傳導기능이 떨어져 傳導之官인 大腸의 經絡流走 부위인 頸項部에 結核이 발생하는 것으로, 大腸正格 적응증의 유의한 진단 요점이 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정인기, 강성길, 김창환. 五俞穴을 이용한 鍼法의 비교고찰 -舍巖鍼法, 太極鍼法, 八體質鍼法을 중심으로-. 大韓鍼灸學會誌. 2001 ; 18(2) : 186-99.
2. 이태호. 舍巖道人鍼灸要訣. 서울 : 행림출판사. 2001 : 27, 28, 42, 52, 60, 62, 90, 96, 98, 100, 102-3, 106, 108, 112, 123, 144, 146, 152.
3.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서울 : 여강출판사. 2000 : 395-6.
4.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 127.
5. 羅昌注, 姜政秀, 勸寧奎, 池鮮漢, 蔡禹錫, 鄭滌吉 外. 한의학총강. 서울 : 醫聖堂. 2004 : 287, 289.
6. 김관운. 舍巖鍼法 隨想錄. 大田 : 도서출판 초락당. 2006 : 111-2.